

민주적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채윤* · 정혜인** · 김여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기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청소년기의 그릿을 통해,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2018년, 2020년, 2023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총 1,131명의 아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PLS-SEM(SmartPLS 4)을 활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그릿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민주적 양육행동이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을 순차적으로 거쳐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청소년기 학업성취에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며, 그릿 증진 및 자기조절학습 훈련의 통합적 적용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민주적 양육행동, 그릿,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순차적 매개효과

목차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논의 및 결론

논문접수일: 2026.03.04.

논문수정일: 2026.03.27.

게재확정일: 2026.04.10.

I. 서론

학업성취는 학생의 미래 진로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 발전의 핵심 지표로도 인식되고 있다(OECD, 2019). 특히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의 학업성취는 이후 고등교육 진학과 직업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는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학습량이 증가하며 자율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전환기로서, 교사나 부모의 직접적인 지도보다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성취를

* 제1저자,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과학부 박사과정 / chaeyun0222@unist.ac.kr

** 교신저자,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hyein@kyungnam.ac.kr

*** 공동저자,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과학부 부교수 / yeolib.kim@unist.ac.kr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Zimmerman & Martinez-Pons, 1990). 그러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가정환경, 개인의 심리적 특성, 학습행동 등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teinmayr, Meißner, Weidinger, & Wirthwein, 2014).

교육심리학 분야에서는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비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그것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비인지적 특성으로(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지능이나 재능보다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Duckworth & Quinn, 2009).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목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흥미일관성과,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노력지속성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와 동료들(2007)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생도, 전국 철자법 대회 참가자, 신입 교사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것이 학력, 나이, 성취동기 등을 통제한 후에도 성공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그것이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증거가 다양한 연령대와 학교급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으며(Credé, Tynan, & Harms, 2017; Duckworth et al., 2019), 국내 연구에서도 그것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김민채, 2025; 송윤희, 박하은, 2021; 이정림, 권대훈, 2016).

그러나 그것이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경로는 단순하지 않다.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그것과 학업성취 간의 상관은 비교적 약한 수준이며(Credé, Tynan, & Harms, 2017), 성실성과 같은 다른 성격 변인을 통제하면 그 예측력이 약화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Ivcevic & Brackett, 2014). 또한 그것의 두 하위 요인 중 노력지속성만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흥미일관성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Credé, Tynan, & Harms, 2017; Muenks, Wigfield, Yang, & O'Neal, 2017). 국내 연구에서도 그것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임효진(2018)은 그것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내재가치와 인지 조절을 통한 간접 경로만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탁하연과 조규관(2021) 역시 그것의 하위 요인인 흥미 유지가 학업 열의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것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구체적인 학습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조절학습은 그것과 학업성취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며,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Zimmerman, 2002). Pintrich(2000)는 자기조절학습을 인지적 전략, 메타인지적 전략, 자원관리 전략의 세 가지 요소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으며(Dent & Koelka, 2016; 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 Pons, 1986), 그것이 높은 학생일수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도 보고되어 있다(Wolters & Hussain, 2015). 실제로 그것의 하위 요인 중 노력지속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며(홍세정, 오인수, 2020),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임효진, 정영주, 2018), 그릿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가 확인되는(황매향, 하혜숙, 김명섭, 2017) 등 세 변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즉, 그릿 자체가 학업성취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릿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학습행동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학업적 성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단일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그릿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양육행동 중에서도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은 온정과 지지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칙과 기대를 설정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방식으로(Robinson, Mandleco, Olsen, & Hart, 1995),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학업성취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mrind, 2013). Robinson과 동료들(1995)은 권위적 양육을 온정과 관여, 합리적 설명, 민주적 참여,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양육방식을 ‘민주적 양육행동’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과의 개념적 혼동을 방지하고, Robinson et al.(1995)의 척도가 민주적 참여를 핵심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의 자율성 존중과 민주적 소통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민주적 양육을 받은 자녀는 높은 학업성취, 긍정적 자아개념, 낮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et, 1992), 국내 연구에서도 민주적 양육이 자녀의 학업 참여도(박선희, 김빛나, 김영희, 2023), 학교 적응(연은모, 최효식, 2022), 학업적 효능감(김현진, 2017)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내면화되는 중요한 시기로서(Erikson, 1968), 이 시기에 경험한 민주적 양육은 이후 청소년기의 동기, 태도, 성격 특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변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부모의 온정성과 자율성 지지와 같은 핵심적 양육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Forehand & Jones, 2002; Zhang, Wei, Ji, Chen, & Deater-Deckard, 2017),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민주적 양육의 영향력이 이후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적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일관된 기대를 통해 장기적 목표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온정적 지지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획득하게 되며, 실제로 부모의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태도가 자녀의 그릿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남희, 전주성, 2023; 홍은비, 노성향, 2022). 그러나 민주적 양육, 그릿,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경로를 하나의 통합적 모형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각 경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방법론적 한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 설계에 기반하여 동일 시점에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 추론에 본질적인 제한이

따랐다.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학습행동으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발달적 과정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며, 특히 아동기의 양육 환경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각 변인의 측정 시점은 발달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만 11세)이었던 시점에 측정하였다. 이 시기는 Erikson(1968)이 제시한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의 후기에 해당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유능감 발달과 장기적 목표에 대한 가치 내면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시기에 해당한다. 그릿은 초등학교 6학년(만 13세) 시점에 측정하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 진입 직전으로, 기질에서 비롯된 심리적 특성이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공고화되는 전환점이며(Park, Tsukayama, Yu, & Duckworth, 2020), 그릿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이 측정 가능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추게 되는 시기이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3학년(만 16세) 시점에 함께 측정하였다. 중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시기로(Zimmerman & Martinez-Pons, 1990), 자기조절학습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달적 맥락에 해당한다. Zimmerman(2002)의 순환적 자기조절학습 모형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목표 설정, 전략 실행, 자기점검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로 수렴되는 행동 체계로서, 두 변인은 동일한 학습 맥락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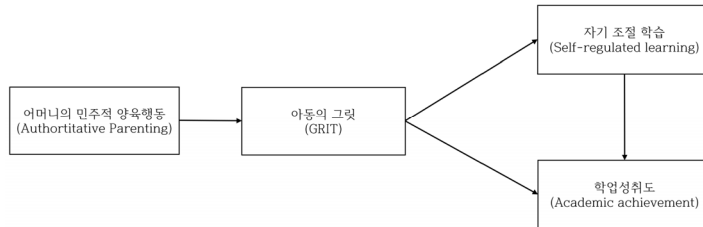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 아동의 그릿,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만 11세) 시기의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중학교 1학년(만 13세) 시기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그릿이 중학교 3학년(만 16세) 시기의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러한 시간차 측정을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양육행동의 장기적 영향이 어떠한 심리적·행동적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그릿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그릿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로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히 끈기와 열정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그릿이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시작된 국가 수준의 종단 패널조사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2006년 기준 연간 분만 건수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패널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이를 둘러싼 부모 및 가족 환경, 학교 경험 등을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적 특성을 활용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한 변수 구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만 11세)이었던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릿은 초등학교 6학년(만 13세) 시기인 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는 중학교 3학년(만 16세)인 2023년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도별 변수 구성은 아동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내적 특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후 중학교 시기의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발달적 경로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적 분석을 넘어,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 요인이 아동의 그릿을 매개로 중학교 시기의 학습행동 및 학업성과로 이어지는 종단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연구에 필요한 주요 변수가 모두 포함된 사례만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표본은 아동 기준 총 1,13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남학생은 580명, 여학생은 551명으로 비교적 균형 잡힌 성별 분포를 보였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

민주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obinson 외(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6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 허용적 양육(permissive parenting)의 세 가지 양육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권위적 양육에 해당하는 문항들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양육과의 개념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민주적 양육행동’으로 표기하였다.

민주적 양육은 온정과 관여, 합리적 설명, 민주적 참여,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온정과 관여는 자녀에게 애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를 나타내며(예: “아이를 껴안아 주거나, 뽀뽀해 주거나, 손잡아 주는 것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에게 행동의 이유와 결과를 인식시키는 정도를 반영한다(예: “아이에게 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민주적 참여는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예: “가족규칙을 정할 때 아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온화한 태도는 자녀를 인내심 있게 대하며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도를 반영한다(예: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대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 만 11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고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문항들을 평균하여 4개의 측정지표(온정과 관여, 합리적 설명, 민주적 참여, 온화한 태도)를 구성하였다.

2) 아동의 그릿

아동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단축형 그릿 척도(Short Grit Scale, Grit-S)를 한국아동패널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장기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흥미일관성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관심사를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곤 한다”), 노력지속성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속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8개 문항 중 4개는 역코딩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고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목 묶기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문항들을 평균하여 2개의 측정지표(흥미일관성, 노력지속성)를 구성하였다.

3)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신현숙과 염시창(2015)이 개발한 중학생용 한국형 학교생활 참여 척도의 자기조절학습 하위척도 중 5개의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계획을 세워 공부하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탐색하여 활용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5개 문항은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나는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아동의 학업성취도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2023년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의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청소년기 학습역량을 대변하는 주요 도구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을 지표로 삼았으며 각 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5단계 등급(A, B, C, D, E)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A=5, B=4, C=3, D=2, E=1).

III.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각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민주적 양육행동은 3.80(SD=0.40), 그것은 3.17(SD=0.56), 자기조절학습은 2.68(SD=0.56), 학업성취도는 3.79(SD=1.12)로 나타났다. 자료분포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 절대값이 3.0 미만, 첨도 절대값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 Kline(2023)이 제시한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측정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적 양육행동은 그림($r=.15, p<.01$), 자기조절학습($r=.12, p<.01$), 학업성취도($r=.0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림은 자기조절학습($r=.22, p<.01$) 및 학업성취도($r=.1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r=.46, p<.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변수들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후속 분석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민주적 양육행동	(2) 그림	(3) 자기조절학습	(4) 학업성취도
(2)	0.15**			
(3)	0.12**	0.22**		
(4)	0.08**	0.15**	0.46**	
Mean	3.8	3.17	2.68	3.79
SD	0.4	0.56	0.56	1.12
Skewness	0	0.28	-0.43	-0.79
Kurtosis	0.32	0.48	0.81	-0.33

* $p<.05$, ** $p<.01$

2.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LS-SEM을 사용하였으며, SmartPLS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RMR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평가하였다. SRMR은 모형과 자료 간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추정모형의 SRMR은 0.069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방법을 통해 산출된 95% 신뢰구간에서도 SRMR은 0.049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인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확인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CR 값이 0.70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Hair, Risher, Sarstedt, & Ringle, 2019). 수렴타당도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통해 평가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67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었다(Hair, Risher, Sarstedt, & Ringle, 2019). AVE는 잠재변수가

측정항목의 분산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0.5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AVE가 0.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2〉 측정모형 결과

구성개념	하위 요인	Loading	CR	AVE
민주적 양육행동	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	0.850	0.910	0.716
	온화/수용적 태도(Good Natured/Easy Going)	0.844		
	합리적 설명(Reasoning/Induction)	0.801		
	온정과 관여(Warmth and Involvement)	0.888		
그릿	흥미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	0.673	0.755	0.610
	노력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	0.876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 1	0.801	0.872	0.577
	자기조절학습 2	0.763		
	자기조절학습 3	0.757		
	자기조절학습 4	0.766		
	자기조절학습 5	0.709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국어	0.860	0.899	0.747
	학업성취도-영어	0.887		
	학업성취도-수학	0.846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기준을 적용하였다. HTMT는 서로 다른 구성개념 간 상관과 동일 구성개념 내 상관의 비율로, 0.85 미만이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Henseler, Ringle, & Sarstedt, 2015). 분석 결과, 모든 HTMT 값이 0.85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각 잠재변수가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측정모형은 적합도, 신뢰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판별타당도 결과

Constructs	HTMT
민주적 양육행동-그릿	0.259
민주적 양육행동-자기조절학습	0.139
민주적 양육행동-학업성취도	0.099
그릿-자기조절학습	0.408
그릿-학업성취도	0.262
자기조절학습-학업성취도	0.559

3. 구조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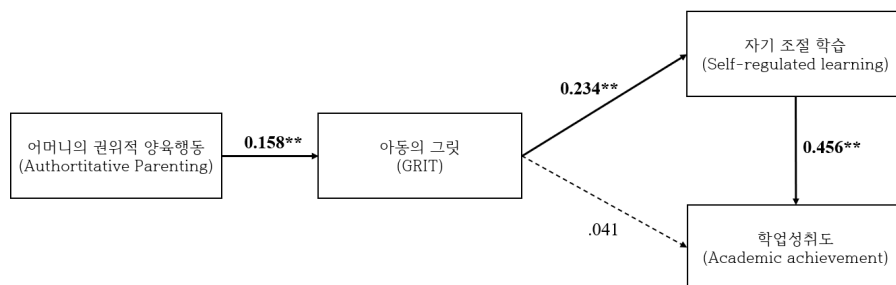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5,000개의 재표집을 실시하였고, 각 경로의 유의성을 t-값과 p-값으로 평가하였다.

<표 4>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경로	β	t	p
민주적 양육행동 → 그릿	0.158	5.198	< .001
민주적 양육행동 → 자기조절학습	0.234	8.306	< .001
자기 조절학습 → 학업성취도	0.456	17.491	< .001
그릿 → 학업성취도	0.041	1.584	.113

분석 결과, 민주적 양육행동은 그릿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8, t=5.198, R^2=.025, p<.001$).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과 관여를 보이고, 합리적 설명을 제공하며, 민주적 참여를 허용하고, 온화하고 수용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그릿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릿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ta=.234, t=8.306, R^2=.055, p<.001$), 이는 목표에 대한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학생일수록 체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점검하는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도에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6, t=17.491, R^2=.218, p<.001$). 이는 어려운 과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아 활용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학생일수록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가 네 개의 경로 중 가장 큰 값을 보여,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반면, 그릿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1, t=1.584, p=.113$). 이는 그릿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민주적 양육행동 → 그릿 → 자기조절학습 →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경로가 확인되었으며, 그릿의 효과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로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모형 분석의 전체 결과는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4. 매개 효과 분석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β	t	p
민주적 양육행동 → 그릿 → 자기조절학습	0.037	4.211	< .001
민주적 양육행동 → 그릿 → 자기조절학습 → 학업성취도	0.017	4.076	< .001
그릿 → 자기조절학습 → 학업성취도	0.107	7.448	< .001
민주적 양육행동 → 그릿 → 학업성취도	0.007	1.469	.142

먼저, 민주적 양육행동이 그릿을 거쳐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7, t=4.211, p<.001$). 이는 민주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그릿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높아진 그릿이 다시 자기조절학습을 증진시키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적 양육행동이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을 순차적으로 거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17, t=4.076, p<.001$).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끈기와 열정을 키우고, 이것이 체계적인 학습전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업성취 향상으로 연결되는 순차적 매개경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릿이 자기조절학습을 거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beta=.107, t=7.448, p<.001$). 이는 그릿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이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끈기와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체계적인 학습계획, 효과적인 학습방법 탐색, 학습과정 점검 등의 자기조절학습 행동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민주적 양육행동이 그릿을 거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07, t=1.469, p=.142$). 이는 그릿 단독으로는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매개경로가 충분하지 않으며, 자기조절학습이라는 추가적인 매개변인이 필요함을 재확인시켜 준다.

종합하면, 민주적 양육행동은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을 순차적으로 거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경로가 확인되었으며, 그것은 자기조절학습을 통해서만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자기조절학습이 그것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적 양육행동, 그것,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민주적 양육행동, 그것,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온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이 네 변인을 하나의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으로 통합하여 각 경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횡단 설계에 의존하여 인과관계 추론에 본질적 한계가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PSKC의 5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서로 다른 발달 시점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횡단 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PLS-SEM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측정모형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양육행동은 그것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8, p<.001$).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로부터 온정과 관여, 합리적 설명, 민주적 참여,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경험한 자녀일수록 2년 후 중학교 시기에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그것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남희, 전주성, 2023; 홍은비, 노성향, 2022). 특히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양육행동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온정적 관여는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를 통해 자녀는 외적 압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내재적 동기를 발달시키게 된다. 특히 민주적 양육에서 제공되는 합리적 설명과 민주적 참여는 자녀가 장기적 목표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고, 온정적 지지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함으로써 그것의 두 하위 요인인 노력지속성과 흥미일관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그것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234, p<.001$).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그것이 높을수록 2년 후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것이 자기조절학습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홍세정, 오인수, 2020; 황매향, 하혜숙, 김명섭, 2017; Wolters & Hussain, 2015). 특히 그것의 하위 요인 중 노력지속성은 인지적, 메타인지적 전략을 포함한 자기조절학습의 전반적 지표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반면, 흥미일관성은 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Wolters & Hussain,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노력지속성이 높은 학생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구체적인 학습 장면에서 계획 수립, 효과적인 전략 탐색, 학습과정 점검이라는 자기조절학습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도에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6, p<.001$).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는 본 연구모형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수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심선경, 2013; 심현, 2017; 최병연, 유경훈, 2010; 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2002). Zimmerman(2002)의 순환적 자기조절학습 모형에 따르면, 학습자는 목표 설정과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전숙고 단계, 실제 학습을 수행하며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수행 단계,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자기성찰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치며 학업적 역량을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어려운 과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 활용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학생일수록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학업성취의 핵심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중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학습량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교사나 부모의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미가 크다.

넷째, 그것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41, p=.113$). 이는 그것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탁하연, 조규판, 2021; 하혜숙, 임호진, 황매향, 2015; Credé, Tynan, & Harms, 2017; Muenks, Wigfield, Yang, & O'Neal, 2017).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학업성취로 직접 이어지지 않으며, 그 끈기와 열정이 구체적인 학습행동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학업적 성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실제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그것은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7, p<.001$). 즉, 그것이 높은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은 그것이 성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수준이 높을수록 체계적인 학습계획 수립, 효과적인 학습전략 탐색, 학습과정 점검 등의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것과 학업성취 간의 불일치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완전매개 모형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민주적 양육행동은 그릿과 자기조절학습을 순차적으로 거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beta=.017, p<.001$). 이는 초등학교 시기 부모의 온정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끈기와 열정을 키우고, 이것이 중학교 시기의 체계적인 학습 전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업성취 향상으로 귀결되는 장기적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온정적 관여는 자녀의 내재적 동기를 형성하고(Deci & Ryan, 2000), 이렇게 형성된 끈기와 열정은 학습 장면에서 계획 수립, 전략 탐색, 자기점검이라는 구체적 학습행동으로 발현되며(Wolters & Hussain, 2015), 이 자기조절학습 행동이 실질적인 학업성취로 이어지는(Zimmerman, 2002) 일련의 발달적 연쇄가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가 단순히 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아동기 가정환경에서 출발하여 심리적 특성과 학습행동을 거쳐 형성되는 복합적 발달 과정임을 시사한다.

2.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둘러싼 기존 선행연구들의 상충된 결과에 대해 학술적 규명을 시도하였다. 그릿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간접효과는 매우 강력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의 효과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민주적 양육행동, 그릿,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를 통합한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가정환경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행동을 거쳐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통합적 경로를 규명하였다. 셋째, 서로 다른 발달 시점에서 측정된 종단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추론을 강화하였으며, 양육행동의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끈기와 열정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이를 구체적인 학습전략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릿 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자기조절학습 전략 훈련을 병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이 확인된 만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계획 수립, 효과적인 학습전략 탐색, 학습과정 점검 등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교 시기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수년 후 중학교 시기의 그릿과 학업성취 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온정과 지지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칙과 기대를 설정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양육방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의 비인지적 특성과 학습행동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그것을 설명하는 분산 설명력은 약 2.5%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노력지속성과 흥미일관성 각 하위요인이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 환경, 개인의 성격 특성 등 그것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동일 방법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부모 보고, 교사 평정, 행동 관찰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였으나, 이전 시점의 변인을 통제하거나 교차지연 관계를 검증하는 엄밀한 종단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가 동일 시점에서 측정되어 인과관계 추론에 본질적인 제한이 따른다. 또한 그것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가 완전매개 구조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교차지연 패널모형 등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양방향 관계와 인과적 방향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단일 측정값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의 질적 변화와 시기별 영향력의 차이를 탐색하지 못하였으며, 양육행동과 청소년기 학업성취 사이에 작용하는 다양한 발달적 변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은 인과관계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시점 양육행동 측정을 통해 양육행동의 변화 궤적이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5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적 양육행동, 그것,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 간의 순차적 매개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아동기 양육행동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행동을 거쳐 학업성취에 이르는 장기적 발달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그것의 효과가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매개된다는 완전매개 모형을 지지함으로써, 그것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비인지적 특성과 학습행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남희·전주성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 관계에서 그릿(grit) 과 삶의 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4(3), 627-647.
- 김민채 (202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2), 315-328.
- 김현진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0-40.
- 박선희·김빛나·김영희 (2023). 부모의 양육차원이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층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30(2), 33-67.
- 송윤희·박하은 (2021). 대학생의 성취가치, 자기효능감, 그릿 및 학업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상당심 리교육복지**, 8(4), 319-334.
- 신현숙·염시창 (2015). 중학생용 한국형 학교생활참여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2), 177-202.
- 심선경 (2013).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도구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13(3), 456-467.
- 심현 (2017).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멘토의 피드백이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5(1), 169-189.
- 연은모·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 이정림·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임효진 (2018). 그릿, 내-외재가치, 수업참여, 인지조절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3), 235-256.
- 임효진·정영주 (2018).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잠재프로파일 분석: 그릿(Grit)의 예측력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0(2), 1-24.
- 최병연·유경훈 (2010).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분석. **교육문 화연구**, 16(3), 183-203.
- 탁하연·조규관 (2021). 중학생의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업열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1), 329-348.
- 하혜숙·임효진·황매향 (2015).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수준에 따른 성격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 부적 응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1(3), 145-166.
- 홍세정·오인수 (2020). 초등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

- 효과. **교육과학연구**, 51(4), 25-42.
- 홍은비 · 노성향 (2022).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 그릿(Grit)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34, 57-80.
- 황매향 · 하혜숙 · 김명섭 (2017). 초등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301-319.
- Baumrind, D. (2013).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11(1), 22-61.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nt, A. L., & Koenka, A. C. (2016). The relation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3), 425-474.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et al. (2019). Cognitive and noncognitive predictors of succ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47), 23499-2350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Forehand, R., & Jones, D. J. (2002). The stability of parenting: A longitudinal analysis of inner-city African-American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4), 455-46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Risher, J. J., Sarstedt, M., & Ringle, C. M. (2019). When to use and how to report the results of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31(1), 2-24.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1), 115-13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vcevic, Z., & Brackett, M. (2014). Predicting school success: Comparing conscientiousness, grit, and

- emotion regulation a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2, 29-36.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uenks, K., Wigfield, A., Yang, J. S., & O'Neal, C. R. (2017). How true is grit? Assessing its relations to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regulation,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9(5), 599-620.
- Park, D., Tsukayama, E., Yu, A., & Duckworth, A. L. (2020). The development of grit and growth mindse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98, 104889.
- Boekaerts, M., Pintrich, P. R., & Zeidner, M.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P. R. Pintrich (Ed.),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451-502). Amsterdam, Netherlands: Elsevier.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obinson, C. C., Mandl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5), 1266-1281.
- Steinmayr, R., Meißner, A., Weidinger, A. F., & Wirthwein, L. (2014). *Academic achiev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OECD Publishing.
- Wolters, C. A., & Hussain, M. (2015).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10(3), 293-311.
- Zhang, W., Wei, X., Ji, L., Chen, L., & Deater-Deckard, K. (2017). Reconsidering parenting in Chinese culture: Subtypes, stability, and change of maternal parenting styl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5), 1117-1136.
- Zimmerman, B. J. (2002).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41(2), 64-70.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 Zimmerman, B. J., & Pons, M.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4), 614-628.

Abstract

The Influence of Authoritative Parenting on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Self-Regulated Learning

Lee, Chaeyun¹ · Jeong, Hye In² · Kim, Yeolib³

¹*Doctoral Candidate, UNIST*

²*Associat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UNI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through which authorit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in childhood influences grit,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ce.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or the years 2018, 2020, and 2023, 1,131 students were analyzed. The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al model were verified using PLS-SEM (SmartPLS 4), and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confirmed through bootstrapp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oth grit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Although the direct effect of grit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the indirect effect through self-regulated learning was significant. Furthermore,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ing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grit and self-regulated learning was also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during elementary school has long-term effects on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grated interventions combining grit enhancement programs and self-regulated learning training, as well as parent education programs supporting authoritative parenting practices.

Key Words: authoritative parenting, grit,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sequential mediation